

하수관거정비 개선, BTL방식으로 가속화된다

하수관거는 생활환경의 개선, 공중위생의 향상, 침수의 방지,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전한 물순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. 우리나라는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부설하였지만 '03년말 기준 전국의 보급률이 65.8%에 불과하고, 설치된 관거도 8.6m당 1곳이 불량하고, 하수관 유량의 31%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.

정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·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'07년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보급률

을 75%수준으로 향상시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하수관거정비는 시민 및 사회전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.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BTL(건설-이전-임대)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다. 이에 본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현황,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.

〈편집부〉

〈참 조〉

- ▲ BTO(Build-Transfer-Operate) :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(BTL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- ▲ BTL(Build-Transfer-Lease) :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,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·수익하는 방식

| 글 쓰는 순서 |

Part 1 하수관거정비사업 현황과 전망(오종극·환경부 생활하수과장)

Part 2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의의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(현인환·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)

Part 3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방안(차희원·이메트릭스(주) 대표)